른 가족의 말에 따르면 권애라가 말년에 정신이 혼미해져 약간의 치매기를 보이기도 하였다고 한다. 학교 공부에 열중이던 손녀 김영방은 아침 일찍 등교할 때 할머니에게서 평상시와 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저녁 때 늦게 돌아와보니 뜻밖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집안이 발칵 뒤집혀 있더라는 것이었다.

전통장례로 발상發喪과 거애擧哀가 되고 안동의 김씨문중에서도 전부터 지면이 있는 김재동金在東 등 수십인 친족이 달려와 문상을 하였다. 장례와 장지를 의논한 결과 친족의 결정이, 망인이 안동 풍산 선영산의 부군 김시현 묘소에 가 합장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는 그 묘소에 부군보다 앞서 별세한 전부인 김오월金梧月이 합장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권애라는 서울 교외를 북으로 빠져나가 통일로쪽 숲속에 있는 운영공원묘지에 초장되었다. 그리고 추후에 그 아들 김봉년이 요로에 신청하여 1990년에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아 8월 15일자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고 다시 국립묘지 이장을 추진하여 1995년에 대전 국립묘지의 애국지사 묘역에 464호 묘소로 안장이 되었다.

권애라는 1897년의 음력으로 추정되는 2월 2일에 강화군 교동면 동산리東山里의 금정金井골 763번지에서 태어났다. 생모 창원황씨昌原黃氏는 그곳 동산리에서 이웃한 무학리舞鶴里 출신인데 권애라의 생후에 곧 별세하여 계모 안동김씨安東金氏의 슬하에서 자랐다. 그 아버지 권태신權泰信은 1831년생인 권종예權鍾霓의 둘째아들로 1866년에 태어났는데 그 중부仲父 권종환權鍾煥이 아들이 없어 그 계자系子로 입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권태신이 천주교를 혹신하여 거듭된 문중회의 끝에 파문破門을 당하였다. 그리하여 안동권씨 33대 항렬자인 클 태泰를 쓰지 못하도록 박탈하여 이름을 태신 대신 민신敏信으로 고치고 고향 세거지世居地에서 떠나라는 출송黜送의 판정을 받았다.

권애라가 두 살 때인 1898년에 민신으로 이름을 바꾼 권태신은 야반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세거지 동산리 금정골 집을 떠나 개성으로 향했다. 이때 갓난아기이던 권애라는 궤짝에 넣어 그 숙부 권태준權泰駿이 업고 이동하였는데 그 궤 속에서 갓난아이가 울음소리를 낼까봐 솜으로 둘러싸서 넣었다고 한다. 동산리에서 20리 거리나 되는 반대편 해안의 지석리에 밤머리나루가 있었다. 지금은 이곳에 황해도 출신 실향민의 향수를 달래는 망향대望鄕臺가 있을 뿐인데 남북분단 전에는 이곳이 교동에서 육지를 잇던 가장 가까운 해협으로서 그 거리가 500미터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황해도의 해주 아래가 바로 건너편인 셈이다. 권태신은 권애라를 궤짝에 담은 채로 이곳에서 작은 배를 타고 해주쪽으로 건너가서는 개성으로 들어가 그곳 천주교회의 일을 보며 정착하게 되었다. 그 거주하던 집은 개성의 만월동滿月洞 327번지였다.

망명하듯 이렇게 고향을 떠난 후 권태신이 교동을 다시 왕래하거나 명절같은 때에 방문했는지는 알 수 없다. 1866년생인 권태신은 33세에 교동을 떠났는데 그후 30여년을 더 생존한 것으로 보면 1920~1930년대까지 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뒷사람들이 구전하는 바에 의하면 권태신은 사후에 고향에서 자기 제사를 한번 지내줄 것을 유언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보면 권태신은 죽을 때까지 고향을 다시 찾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권태신의 사후에 권애라는 그같은 선친의 유언을 들어주기 위해 고향을 방문했다. 일제하에 신여성이 배를 타고 교동섬으로 들어오자 그곳 주재소의 일경日警이 대번에 수상히 여기고 붙들어 들여서는 꼬치꼬치 캐묻고 놓아주지를 않았다. 이에 권애라가 일본말로 따져 대응하며 호통을 치니 이윽고는 주재소 주임까지 절절매게 되었다. 이 광경을 당시 권씨 집안과 척분이 있던 그곳 부면장이 달려와 보고는 그 기개에 놀라며 왜자한 소문이 퍼지게 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보면 권애라의 집안이 천주교를 독신하면서도 선대의 제사는 지냈던 것으로 생각된다.

권애라가 서울에 믿고 의탁할만한 연락처로 삼았던 것은 종로의 안국동 근방에 있던 '권중락한의원집'이었다고 한다. 권중락은 구황실의 어의御醫였던 명의 '방선생'이라는 인물의 문하생으로 매우 영험한 의술을 가지고 있었다. 권애라가 같은 권씨라서 특별한 친족관계가 바탕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권중락한의원과는 관계가 매우 각별하였다. 해방 전에 그 아들 김봉년을 맡겨 신분을 숨기고 학교에도 다닐 수 있게 했던 곳이 바로 이 권중락한의원집이고 해방과 동란 후에도 권애라가 자주 찾아다니며 약을 지어다 쓰기도 하고 친정의 조카들에게도 이 집을 소개하여 직접 데리고 가 진맥을 받게 하기도 하였다.

권애라가 별세할 때까지 불광동 288번지 독바위 산동네집에서 한방을 같이 썼던 손녀 김영방은 사대를 나와 중고등교사가 되었는데 덕성여중고를 다녔다. 이 학교는 일제시 재정난을 겪고 있을 때 그 할머니 권애라가 명연설로 모금을 하여 되살려 놓은 바로 그 덕성여학교였다. 어릴적 김영방에게 그 할머니는 콩쥐팥쥐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고 한다. 그 계모 안동김씨가 권애라를 매우 진지하게 키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릴적의 권애라에게는 친생모에의 그리움이 사무치는 천륜을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옛날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이 할머니는 김영방에게 소녀의 감성에 젖게 영어 노래도 가르쳐 주었는데 가령 '비코즈 오브 러브 Because of Love'같은 곡은 외국 가수 뺨치게 잘 불러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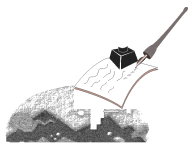
그 친정 당질녀 권경애는 '애라고모'의 이야기를 하면서 70이 넘은 노안에 이슬이 맺히곤 했다. 허줄한 쪽찐 머리에 남자 흰고무신 또는 여자고무신을 신고 도보로 서울 장안을 돌아다니다가 때를 걸러 허기진 속으로 찾아오는 곳이 권경애의 셋집이었다. 그때 서둘러 더운 밥을 지어 대접하면 꿀처럼 맛있게 자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그럴 때 권경애는 그 밥상 앞에 앉아 속이 상해 원망하듯 한탄했다. '왜 고모는 이화대학 총장 김활란 같이 좀 되지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 고모가 박순천보다 열배 백배가 나으면 무엇하느냐! 그걸 누가 알아주느냐'고 퍼대면 권애라는 분연히 정색을 하고 '그것도 다 나라가 있고서 김활란이고 박순천이고 있는 게다. 나라를 찾았으니 지금 김활란이고 박순천이고 있는 게야. 그래 나라를 찾으러 다닌 게지'하며 한숨짓고는, 혼자 말하듯 '그래도 내가 죽은 뒤에라도 언젠가 내 이름이 크게 드러날 날이 있을 게다'하고 말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권경애는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게 바로 고인이 이를 일러 한 말이라도 되는 듯 무엇에 씌인 눈빛이 되어 보였다.

<權五焄>

▲ 권애라를 대전 국립묘지에 이장할 때의 회장자들

능동칼럼

송구영신送舊迎新의 풍속



權 海 兆
편집위원

어느새 기축년이 저물고 새로운 경인년이 다가온다. 연말이 되면 대개 한 해의 업무를 분석정리하고 명년의 계획을 세우니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연종이 다가오면 동창회·향우회·직장과 가족·친족 모임 등이 줄줄이 있어 많은 시간을 뺏기며 정신이 없게 된다.

필자도 기축년 달력 12월 마지막장을 넘기고 보니 이곳저곳 송년모임으로 빈 날이 없을 지경이었다. 한해의 다사다난했던 노고와 회포를 풀고 괴로웠던 일을 잊으려는 뜻에서 망년회忘年會라고도 하던 송년회는 으레 서로 반갑게 만나 먹고 마시고 노래하는 놀자판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우리의 생활문화가 변하고 송년회 풍속에도 변화가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종독감의 영향으로 송년회를 취소하는 모임도 있고 지난번의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낸 기업사회의 풍속도 달라지고 있다. 놀고 마시기에서 탈피하여 건강과 섭생을 추구하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선행과 나눔의 실천에 동참하는 추세로도 흐르고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서울 구로공단의 중소기업들도 종전에는 '해가 가기 전에 일을 더하자'던 구호식 풍토에서 변하여 '해가 가기 전에 덜 쉰 것을 마저 쉬고 내년에 더 힘을 내자'는 마인드가 되어 사원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주는 방향으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낮시간에 송년회를 열어 우수 판매원으로 선정된 80명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축하공연을 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하였고, 제일제당은 음주 중심의 모임에서 스포츠나 문화행사로 대체하는 송년회를 권고하고 있으며, GS리테일은 마음껏 웃을 수 있도록 노래와 춤을 선사하는 송년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홈플러스는 송년회를 전임직원이 참여하는 '나눔바자회'로 대체하고, 현대기아차는 연말을 '사회봉사 기간'으로 정하였으며 삼성은 연말에 독거노인 등 소외 이웃에 겨울나기를 돕는 봉사활동을 벌이는 것을 송년 사업으로 펼칠 계획이라 하였다.

또한 대기업은 사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확보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장기휴가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사원들의 남은 휴가를 연말에 몰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휴가제를 도입하여 크리스마스부터 신정까지 10일간의 겨울휴가 시즌을 허용할 전망이며, 포스코도 연말연시 10일간의 휴가를 실시하고, 홈플러스도 연차 범위내에서 1주 이상의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패밀리 휴가제'를, 롯데마트도 연차휴가 5일씩을 붙여 '가족사랑 휴가제'를, 현대백화점도 5~10일간의 연차휴가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해피 윈터10' 제도를 시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같은 기업의 송년행사를 거울삼아 앞으로 우리의 동창회·향우회·친족모임 등도 종전의 먹자판 시끌벅적판에서 탈피하여 좀더 생산적이고 '웰비잉적인' 형태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웃돕기 봉사활동으로의 대체도 좋고 교양강의나 들으며 지난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설계하며 가족 친지와 함께 뜻있게 보내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서 너무 많은 모임은 흡수 통합해 줄이기도 하고 되도록 저녁 송년회를 오찬 송년회나 신년회로 대체하여 송구영신의 덕담을 나누는 풍속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의 전통 민속에는 세배에 있어 '묵은 세배'와 '햇세배'가 있었다. 묵은 세배는 한 해를 보내면서 부부간에서부터 서로 절하며 인사하는 것이고, 햇세배는 새해를 맞아 역시 부부간에서부터 시작하여 서로 절하며 인사를 나누는 것이었다. 묵은 세배든 햇세배든 이같은 세배인사를 함에 있어 한 잔 술에 다담상을 대접하고 대접받는 것이 예사였지만 많이 때려 먹고 마시며 소란을 떠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묵은 세배가 이를테면 오늘날의 송년회이고 햇세배는 신년회와 같은 것이라 본다면 크게 어긋나는 바일까.